

삼척석탄발전 백지화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제안서

제안: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일시 : 3월 25일 오전11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 선언대회 취지와 목표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개별연명 (약 300개 단체 목표)

배경

- 지난 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에서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온실가스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발전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 충남 서천,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총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어 가동될 경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128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동기간동안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도 최대 108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항만 건설로 인한 해안침식 문제로 삼척의 아름다운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척석탄발전과 같은 석탄발전의 이용률은 2030년에는 50%, 2040년에는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삼척석탄발전 예상 이용률- 2030년 62%, 2040년 25%). 환경, 기후, 경제 그 어떤 측면에서도 삼척석탄발전소를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삼척블루파워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계속 자금을 모으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했고, 자산운용사의 80%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 경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된 결과입니다.
- 하지만, 삼척블루파워는 3월 말 다시 회사채 발행에 나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촉박한 일정이지만, 각계각층의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3월 25일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 선언대회’를 조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에도 삼척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선언이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삼척블루파워’를 건설 중단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목표

- 각계각층의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요구
-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제공 중단
- 사회각계각층의 최대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선언대회 조직

선언대회 진행 계획

-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지금, 주민, 청년, 종교, 여성, 과학, 보건의료, 부모 등 사회 각계 각층이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하루 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부 환경그룹의 요구가 아니, 사회 각계 각층 여러 부문의 요구임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대한 선언대회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공동주최)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가안)]

사회:

각 분야 발언 (각 5분, 총 최대 30분)

삼척석탄화력 건설중단 퍼포먼스

연대 성명서 낭독

참여단체 요청 사항

- 선언대회의 공동주최 단체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최 참여단체는 아래 참가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분담금은 없습니다.)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coxLE3Bmf6de5HF56>
- 문의 : 기후솔루션 배여진 yeojin.bae@forourclimate.org, 010-9648-1289

[참고자료] [삼척석탄화력 현황](#) (←클릭하세요.)